



남원 노암동, 독거 어르신에 생일선물 전달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진종훈)는 지난 5일,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인 '파티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부재로 생신날을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 매년 1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마을 통장이 직접 일일 파티플래너로 나서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이번 생신 잔치의 주인공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싫다며 기초연금에 의지한 채 노후를 보내고 있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날 행사는 정성껏 준비한 맞춤형 생신 상차림으로 생신 축하 노래, 케이크 촛불 끄기 순으로 훈훈하게 진행, 지정기탁 사립비로 마련한 풍성한 '생필품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나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OPEN 소방서' 체험 진행

남원소방서는 지난 4일, 남원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과 인솔자 등 9명을 소방서로 초청, 재난 취약계층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OPEN 소방서'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피난 및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신체로 직접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대처법을 익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실제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 입기 체험 △소방호스를 이용한 시원한 방수 체험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며 소방관의 업무를 이해하고 화재 초기 대응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본격 활동 시작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한국119청소년단 입단식과 소방안전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청소년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완산119청소년단은 명재어린이집, 도청어린이집, 위즈어린이집, 평화초등학교 소속 단원 56명으로 구성됐으며, 평화초등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초등학생 참여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입단식과 소방안전교육은 각 기관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119청소년단 단원 선서와 기념촬영에 이어 심폐소생술 교육과 소화기 사용 체험 등 어린이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운영됐다. /김재훈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호 KESCO 기술명장 선정

인천본부 문성환 과장 선발... 전기안전 분야 핵심 기술인재 육성 본격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명장 제도의 첫 수상을 선정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새올빌딩에서 '제1호 KESCO 기술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천본부 문성환 과장을 첫 기술명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ESCO 기술명장은 공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전기안전 기술역량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현장 기술인력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기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벤치마킹해 마련됐으며 공사의 기술역량인증제도와 연계해 운영된다.

공사는 지난 4월 기술역량등급 검사 Level 5를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검증과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 약 두 달간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에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업무성, 기술 숙련도, 소통 및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제1호 기술명장으로 선정된 문성환 과장에게는 사장 표창과 기술명장패가 수여됐으며, 국제기술세미나와 전문교육 참여 기회, 전문강사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사내 기술교육과 후배 직원 멘토링을 통해 핵심 기술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술명장 제도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조직 자산으로



체계화해 전기안전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의 숙련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기술명장 제도를 통해 우수 기술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현장의 전문기술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 마을회관 71곳 에어컨 세척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농협 계열 기관들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냉방시설 점검에 나섰다.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지사장 고영훈)는 최근 봉동농협, 전주농협, 삼례농협, 남원축협 등과 협력해 관내 마을회관 71개소에 설치된 에어컨 80여 대를 대상으로 필터 세척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농촌지역 고령층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약 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농협파트너스(대표이사 정명화)는 마을 어르신 돌봄과 농작업 지원,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동조합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장수군, 제26회 천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음 행사 성료

출향인과 주민이 함께한 정겨운 축제 '큰 호응'

장수군 천천면은 지난 5일 천천면 하늘내체육공원에서 면민들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제26회 천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천면이 주최하고 천천면 체육회가 주관했으며, 최훈식 장수군수와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천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단과 색소폰팀, 노래교실팀의 흥겨운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면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과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뽕튀기 나눔 행사'가 함께 운영돼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정을 전



행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주민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천천면민의 장 산업공익장에는 김진원 씨, 문화체육장에는 고현정 씨가 각각 선정됐으며,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만수무강상은 유금에 씨에게 수여됐다. 오후에 열린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고리걸기, 투호 등 전통 체육경기와 노래자랑,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경찰,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충혼탑 참배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칠보면 칠보 충혼탑에서 박상훈 서장과 각 과장, 지어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칠보 충혼탑은 1951년 당시 적 2,500여명에게 칠보발전소 일대를 포위 당하자 차일혁 경무관을 비롯 경찰 75명이 탈환 작전을 벌여 성공한 경찰혼이 새겨져 있는 곳으로 매년 지역주민과 유가족 등의 참배가 거행되고 있는 뜻깊은 장소이다.

박상훈 서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순창군, '병원동행매니저 1급' 직업교육훈련 성료

순창군이 군민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원동행매니저 1급' 과정이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총 8차시에 걸쳐 진행됐으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환자 동행 기본 이론, 복약 지도 등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총 19명이 참여한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교육 열기와 만족도를 보여줬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